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강조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안보적 관점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보호에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김청장은 또 수사구조 개혁에 맞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내·외부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주민여론과 범죄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는 수사시스템 구축 구상하고 있다.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검경 수사분리'와 지역 치안 관리 등에 대해 들어봤다.

“촘촘한 치안으로 ‘안전한 전남만들기’ 지상과제”

-취임 6개월이 넘었다. 전남경찰청장으로서는 소회는.

▲청장 취임 후 직원들과 함께 도민에게 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경찰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전남지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면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중요한 현안들도 잘 마무리했다.

특히 제감안전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남은 임기에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과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둔 치안활동으로 도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 도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보호 임무를 흐트러짐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올해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하면서 '책임수사 원년'에 걸맞는 수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현재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국민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경찰에게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사실상 경찰의 움직임에 코로나19 대응의 향배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경찰은 당장 최대 현안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가 놓여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준비 중인가.

▲이번 수사구조개혁을 큰 틀에서 보자면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이제 양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가 재정립되었고,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경찰은 2020년을 '책임수사 원년'으로 삼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내부적으로 '책임수사 추진본부 실무추진단'을 설치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



검경수사권 대응 '책임수사 추진본부' 설치 사회적 약자 치안·범죄예방 지자체와 협업

관' 제도를 신설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분야 수사역량을 특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전남은 대표적인 농수산 지역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치안 수요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운용 내용이 있는지.

▲전남 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주민여론과 범죄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촘촘한 치안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농촌 지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찾

아가는 치안설명회'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면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을 앞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농 복합지역은 다양한 범죄취약지를 관리하기 위해 주민·지자체 등과 협업하며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업주 대상 간담회 개최 등 범죄예방 홍보와 CCTV와 같은 방법 시스템 설치 등 자위 방범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경찰관 매체지 유인도서에 이장·어촌계장 등을 '도서지킴이'로 지정해 주민 신고요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순찰선 순찰도 정례화했다.

도서지역 치안인프라 강화를 위해 선착장 CCTV 및 학교 등 여성 거주관사 중심 방범 시설물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전남에서는 최근 학교 및 이주민 여성 폭력 등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에 어떠한조치가 있는가.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공적적인 목표이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 여성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도 작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TF팀을 구성했다.

자치단체 등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여

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경찰-지자체간 지원·협업 관계를 반영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작년 한 전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원받은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824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다져나갈 것이다.

-경찰 본연의 치안을 뛰어넘어 일반 복지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생활의 고통 등으로 인해 범죄 피해 등이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need)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 역시 경찰 본연의 임무이다. 아들에 대한 보다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남경찰도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조례와 예산을 통해 지원 체계를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자치경찰제 역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자치경찰 시행으로 지역에 특화된 치안 활동을 전개하면서, 복지서비스 등 자치단체의 일방행정과 경찰의 치안역량을 융합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치안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 과정에 국선변호인이 입회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나 진술을 다루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변호인 선임 능력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 온 것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극복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실질

적인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고자 경찰 수사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이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제도의 개정내용이 포함된 '법률구조법'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화된 경찰청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경찰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제도', '심야조사 제한'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 감염병에 새로운 안보적인 접근이 필요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감염병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는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단순 행정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 전남의 경우 선제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확정한 자 수는 4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여건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경찰은 지난 1월부터 도내 공·항만 검역소 4개소에 12명의 경찰 인력을 지원했다. 지방청을 비롯한 각 경찰서에 총 165명으로 구성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자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하고,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권력을 가진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남 경찰은 상토주무(桑土縹緲)의 자세로 도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진=김태규·글=김영민 기자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민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주요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스텝 플레이스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상담실 080-800-8888, (02)553-8888 www.vogemil.co.kr